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17(화) 11:00,  
(지면) 2024. 12. 18(수) 조간

배포 2024. 12. 17.(화) 06:00

## 해양수산부-GS리테일,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해 손잡다

- 수중 정화활동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8일(수)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하 ESG)\* 활성화를 위해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곽창현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다.

\*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법과 윤리는 철저히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활동

해양수산부는 매년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유통을 추구하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와 GS리테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등 보호를 위해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치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바다거북의 산란지인 제주해역의 기후변화 지표종 관찰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거북과 해양보호생물 보존 메시지를 담은 GS리테일 종이백을 내년초부터 전국 편의점 GS25, 슈퍼 GS THE FRESH 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보호생물 보존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280)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영 (044-200-5289)

참고

## GS리테일 종이백 시안

